

야구는 계속된다...KIA 장민기·강동훈 아시아선수권 출격

야구 아직 끝나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장민기와 2024 신인 우완 강동훈이 올 시즌 마지막 야구 대회를 장식했다.

제30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가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대만에서 열린다. 정보명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대표팀은 투수 11명, 포수 3명, 내야수 5명, 외야수 4명 등 총 24명으로 꾸려졌다.

KIA에서는 지난 1일 상무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장민기와 2024신인드래프트에서 5라운드 지명을 받은 중앙대 강동훈이 대회에 참가한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워밍업을 했던 두 사람은 지난 22일 국내 강화훈련에 소집돼 3일 오후 7시 대만과 타이페이 돐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역과 프로 선수로 새 출발을 앞둔 두 사람은 이번 대회를 자신감을 채우고 자신을 어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마산 용마고 출신의 장민기는 2021년 KIA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은 유망주. 그는 프로 첫해 12경기에 나와 1.9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자신의 이름을 알린 뒤 2022년 상무에 입단해 군 복무를 수행했다.

장민기는 "군필이라 마음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키에 비해서 타점이 높은 게 장점이다. 캠프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변화구도 괜찮았다. 슬라이더와 포크 둘 다 괜찮았다. 처음 라이브 할 때 마운드가 엄청 멀어 보였는데, 부족한 것 위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대회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2024시즌 경쟁을 위해 시동을 거는 장민기는 '변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민기는 "이상적인 포크는 직구처럼 가다가 떨어야 한다. 그 부분 신경 쓰겠다. 직구는 어느 정도 영점이 잡힌 것 같은데 변화구는 아웃코스 인코스는 어느 정도 되는데 위아래도 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생각하겠다"며 "2021년 처음 프로 마운드에 올라가서 던졌을 때 자신감 있게 하니 불안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볼 들어가고 아직 하나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했었다. 그런데 많이 던지기는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팔 각도가 점점 내려왔다.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

예비역 장민기 "변화구에 초점" 강동훈 "프로 첫 캠프 준비 만전" 다음달 3일 대만에서 대회 개막

다"고 말했다. 전역 후 달리진 팀 '좌완' 상황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 좌완 고민에 시달렸던 KIA는 지난 2년 좌완 왕국이 됐다.

장민기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나중에 좌완 자리가 빌 확률이 높아진다. 1군에서 좌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생긴다. 내가 잘하고 있어야 하니 집중해서 기회를 노리겠다. 좌완들과 또 좋은 라이벌도 될 수 있다"며 "일단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다.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프로 첫해에는 후반기에 좋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끝까지 잘 던지는 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동훈은 변화구와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프로 첫 캠프에서 그는 자신의 장점인 변화구를 키우고, 제구를 가다듬는 데 노력했다.

강동훈은 "처음 캠프에서 라이브 피칭할 때 긴장도 했는데 야구하는 건 다 똑같다. TV에서 보던 사람들이 타석에 나오니까 신기하기는 했다(웃음).

무거운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캠프 분위기도 좋고 편하게 해주셨다. 운동 즐겁게 했다"며 "슬라이더와 커브, 변화구는 누구보다 잘 던질 자신 있다. 직구는 스피드보다는 제구에 신경 쓰고 있다.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좁으니까 제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강동훈은 지난해 제56회 대통령기 대학야구대회에서 중앙대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도 선정됐다. 생애 첫 우승 순간 주역이 됐던 강동훈은 KIA에서 다시 한번 우승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각오다.

강동훈은 "올 시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일찍 지명을 받을 줄 몰랐다. KIA에서 경기 운영이나 변화구에 대해 기대한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처음 우승이라는 좋은 경험을 했는데, 올해는 잘 못해서 아쉽다. 앞으로 잘해서 KIA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웃었다.

이어 "캠프에서 선배들 하는 것 보니 확실히 제구가 안정적이다. 왜 1군에서 살아남고 던지는지 알 것 같았다"며 "처음 대표팀에 나가게 됐다. 태극마크를 달게 돼서 영광이다. 경기 운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떻게든 점수 안 주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년 꼭 1군 올라가서 이기는데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장민기(왼쪽)와 2024신인 강동훈이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선전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KBO 2023시즌 MVP·신인상 누구?

KIA 운영철·최지민 신인상 후보 박찬호 유격수 부문 수비상 수상

KBO 2023시즌을 돌아보는 시상식이 열린다. 2023 KBO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 2023 KBO 정규시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신인상 주인공이 발표된다.

올해 신설된 KBO수비상의 주인공들도 단상에 오른다.

KBO는 정규시즌이 끝난 뒤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와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MVP와 신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MVP 후보로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와 한국야구기자회에서 적극적인 후보로 선정한 선수 중 서진웅·최정(이상 SSG), 후라도·김혜성(키움), 오스틴·

홍창기(LG), 고영표·박영현·쿠에바스(이상 KT), 페다·손아섭(이상 NC), 뷰캐넌·구자욱(이상 삼성), 알칸타라·정수빈(이상 두산), 노시환(한화) 등 총 1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 부문에서는 KBO 표창규정 제7조에 의거해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 중 운영철·최지민(이상 KIA) 김동현·이주형(이상 키움), 문동주·문현빈(이상 한화), 유영찬(LG), 김민식·윤동희(롯데), 김동주(두산) 등 10명이 각축을 벌였다.

올해 신설된 KBO 수비상을 놓고 투수 108명, 포수 14명, 내·외야수 53명이 후보로 경쟁을 했다. 수비상은 수비 지표(25%)와 구단별 투표인단

(각 구단 감독 1명·코치 9명·단장 1명 등 110명)의 선정 투표(75%)를 거쳐 포지션별 1명, 총 9명의 초대 수상자가 결정됐다. KIA에서는 박찬호가 유격수 부문에서 LG 오지환과 공동 수상자로 선정돼 트로피와 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

프로 첫해 8승을 수확한 '신인왕 후보' 운영철도 시상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KBO리그 부문별 1위 선수와 우수 심판위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돌아간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 탁구인들이 지난 18일 열린 제20회서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탁구협회 제공>

내일 광주 탁구인의 밤 행사...희망찬 내년 다짐

내년 대통령기·대한체육회장기 굵직한 대회 광주 유치 성과

광주 탁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내년을 다짐한다.

광주시탁구협회(회장 박석인)가 25일 오후 5시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2023 광주 탁구인의 밤' 행사를 열고 각 구 탁구협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내년 광주에는 두 개의 큰 규모의 탁구대회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의 광주 유치가 결정되면서 시의회 예산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전국적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뜨거운 분위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탁구인의 밤' 행사 1부에서는 한 해 동안 광주시 탁구협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상이 시상된다. 공로상은 타그로스스포츠의 박성호 대표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탁구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레크레이션과 함께 행운권 추첨도 진행된다.

박석인 광주시 탁구협회장은 "탁구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연합회 임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크고 작은 대회들을 무사히 치르게 됐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소중한 광주 탁구인들과 행사를 마련해 기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 우수 서희주 세계선수권 은메달

대한민국 우수 대표팀 서희주(전남우수협회)가 세계우수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수 대표팀은 지난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우수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우수는 전통무예 동작을 펼치는 경기로 표현경기인 투로종목과 자유대련 경기인 산타종목으로 나뉜다. 세계우수선수권대회는 100개국,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우수 대회 중 최대 규모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의 즈엉 투이 비에게 0.003점 차이로 밀려 4위를 기록했던 서희주는 이번에 은메달을 목에 걸며 아쉬움을 달랠다. 20일 펼쳐진 여자 장승 경기에서 9.793점을 획득한 서희주는 마카오의 리이에게 0.003점 뒤졌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산타-60kg 김민수는 16강 멕시코 선수와의 경기에서 왼쪽 눈꺼풀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승리를 얻어냈다. 그는 8강에 진출했지만 홍콩에 패했다.

홍민준(서울시설관리공단)은 산타 -56kg에서 인도네시아 선수와 접전 끝에 2-1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용문(충남체육회)과 서희주는 은메달, 조상훈(영주시청)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한우수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은 지도부로서 선수들을 우수한 성과



서희주

로 이끌었다.

그는 "서희주 선수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는데 이번에 메달권에 들어서 다행"이라며 "부상이 100%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아직 크지 않은데,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활약한 것은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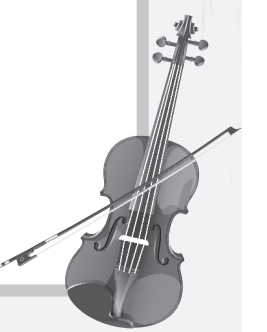
- 1관 서울의 봄
- 2관 서울의 봄
- 3관 더 마블스, 본투 플라이, 30일
- 4관 서울의 봄, 스노우 폭스: 썰매개개 될 거야, 30일
- 5관 프레디의 피자가게
- 6관 서울의 봄
- 9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워 프렌드
- 7관 씨네마들 헝가리 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30일
- 8관 씨네마들 프레디의 피자가게, 소년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